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 및 행동 변화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Unemployed, and the Negative Emotions and Behavioral Changes in Their Children

고신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천희영

Dept. of Child Studies, Kosi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un, Hui 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unemployed, and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behavioral changes in the context of the increasing family dysfunction caused by the IMF economic crisis.

The subjects were 184 public labor workers in Busan. They answered the questions abou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children's behavioral changes. Frequency analysis, χ^2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unemployed showed high levels of negative emotions and perceived their social supports as low. As well, they interpreted their quality of life as poor. They perceived their economic difficulty as high and the perception was influenced by negative emotions as well as the economic situation. Children of the unemployed showed middle levels of negative emotions, and positive and negative behavioral changes. These changes were influenced by their par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In light of these results,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from social welfare centers are needed to be more actively supporting the families of the unemployed.

I. 서론

정부는 내년도 평균 실업률을 올해보다 1%정도 떨어진 5%로 추정하고 공공근로 사업의 규모도 올해 2조 1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줄여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¹⁾ 이는 어느덧 우리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직 가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자칫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아직 우리 주변에 상당수의 실직 가정이 존재하고, 서민들의 체감 경제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IMF체제로의 돌입에 따라 사회안전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이한 정부는 지난 한해 동안 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김옥희, 1999), 생계형 대책을 중심으로 한 복지대책의 실시(홍금자, 1998)로 대처해 왔다. 또 아직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경제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충분할 만큼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위기의 충격은 각 가족에게 그리고 각 가족에 속한 가족 성원에게 별다른 사회적 완충장치 없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남찬섭, 1999).

실직의 가장 분명한 결과는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것은 기존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그러나 신체적·심리적 측면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 모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서 결국 가족관계의 해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족성원들의 생활은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한 성원의 생활상의 문제가 다른 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 개인의 실업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가 구성원으로 속해있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관계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업의 영향은 개인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신건희, 1999; 조성희, 1999).

그러나 실직자 또는 실직 가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경제생활을 중심으

로 한 생활실태 조사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예를 들면, 남춘호, 1999; 박능후, 1999등). 실직 가족의 구성원이 갖는 심리적 특성의 조사는 주로 실직자 자신의 기본 정서반응 또는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남찬섭, 1999; 남춘호, 1999; 신준섭과 이영분, 1999; 조성희, 1999), 가족관계적 변화의 조사도 부부관계나 자녀의 행동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보는데 그쳤다(남춘호, 1999; 남찬섭, 1999; 조성희, 1999). 이에 비해 최규련(1999)은 실직자의 아내가 지각한 부부관계, 자녀, 가족전체, 친척관계에서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그 변화에서의 측면을 다양하게 조사한 바 있다. 또 조성희(1999)와 함께 가족 전체의 맥락에서 실직 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의 경향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첫째, 실직자 자신의 심리적 특성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기본적인 정서 특성 뿐 아니라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삶의 질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의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의 위기를 초래하는 외부적 위협요인이지만, 가족 위기를 가져오는 사건, 그 가족의 소득·자산과 같은 자원 뿐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한 가족의 인식, 가족자원과 가족인식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기 수준의 인식에 따라 위기에 대한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McCubbin & Patterson, 1983, 조성희, 1999에서 재인용; Voydanoff, 1990, 김양희 외,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실직에 의한 가족자원의 상실 또는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의 파급 강도는 가족인식과 위기수준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조성희(1999)는 실직에 대해 가족이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판단하는 가족인식을 조사하면서, 특별히 실직 가장 자신이 인식하는 현재 생활수준의 심각성이 가족의 위기상황 직면 가능성과 가족의 해체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나아가 이러한 중요

1) 조선일보, 1999년 9월 22일 40판 4면

성을 갖는 경제적 심각성의 지각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연구하는 것은 위기에 대한 대처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당위성과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선우(1999)가 지적했듯이, 실직자들이 경제난에 따른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겪을 수 있는 가족위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실직자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정서적 프로그램 즉 비경제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사회복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경제적 심각성 지각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먼저 파악하는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실직 가정의 자녀가 보이는 심리적 특성과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자녀 변화와 부모의 인구사회적·심리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실직 또는 실직 가정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복지적 차원 또는 가정관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그 가족 속의 아동에 대한 관심은 소외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실직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정적·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시켜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박현선, 1999b). 따라서 자녀의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실직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생계의 어려움이나 소득 부족 이상으로 자녀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가족구조적인 접근에서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의 개인화에 의한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행동변화가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박현선, 1999b). 경제적 생활변화가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로는 중하류 계층의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심리적 관계를 연구한 박민선과 박성연(1999)의 연구,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다룬 박현선(1999b)의 연구 외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연구는 부모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정서와 같은 심리적 특성 또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내적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나아가 외현적인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변화에 영향 미치는 부모와 아동

변인을 파악하는 것은 실직 가정의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직자 가정의 자녀에게 영향 미칠 수 있는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의 파악이 궁극적으로 자녀 개인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마련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박현선, 1999a)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직으로 인한 가족의 위기 증가 속에서 실직자가 보이는 심리적 특성, 그리고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행동 변화를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실직자 가족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나아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가?
: 실직자의 부정적 정서,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삶의 질, 경제적 심각성 지각은 어떠한가?
2. 실직자가 지각한 경제적 심각성에 영향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3. 실직자 자녀의 부정적 정서, 실직 후 자녀에게서 나타난 긍정적·부정적 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4. 자녀의 긍정적 및 부정적 행동변화에 영향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실직자에 관한 조사는 모집단의 명단 작성이 어려우므로 무선표집이 쉽다(남춘호,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에 의한 연구는 비교적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연구들(김양희 외, 1999; 최규련, 1999; 신준섭과 이영분, 1999)은 구직신청이나 정보를 얻으려 구청의 구

직정보센터나 노동사무소를 방문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전북지역에서 98년과 99년에 이루어진 실직자 조사들 역시 노동사무소나 고용안정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사람 및 재취업 훈련생과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었다(남춘호, 1999).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의 신청 기준²⁾은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로 되어 있어 외환위기 후의 실직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실직자 집단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³⁾.

부산광역시 Y구청에서 시행한 99년도 제3차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한 184명이 조사대상이었다. 3차 공공근로사업의 4개 사업군별 참가인원은 일반 노무사업에 1170명, 전산화 전문사업에 180명, 행정업무 보조사업에 40명, 사회복지업무 보조사업에 40명으로 총 141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군을 크게 노무사업과 사무행정사업으로 나누고 전체 인원의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전자에 140명, 후자에 70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자의 수는 노무사업 참가자 121명, 사무행정사업 참가자 63명이었다.

2. 조사방법

실직자의 인구사회적 변인 조사와 함께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 경제상황 조사를 위한 문항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이 전국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실태 및 복지육구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경제 변인에 해당하는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순수추가 소득, 실업의 수입, 정부지원의 범주별로 해당되는 생계유지의 수단 빈도를 조사하였다.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 조사에서 불안, 적대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정서별 1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지각된 도움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도'(오은순, 1997)의 4가지 하위 척도 중 유형적 지지를 제외한 정보 및 평가적 지지, 자존심 지지, 소속 지지별로 문항 2개씩을 선정하였다. 문항 반응 양식은 '예', '아니오'였다. 삶의 질은 문혁준(1998)이 사용했던 Quality of Life Scale(Andrew & Withey, 1976)의 문항 중 자신,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3개 문항으로, 지각된 경제적 심각성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그 모든 문항들은 Likert식 4점 척도였다.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의 실직 후 자녀 중 한 명에게서 나타난 부정적인 정서 및 긍정적·부정적 행동변화를 조사하였다. 부정적인 정서는 우울, 분노, 불안에 관한 총 3개의 Likert식 4점 척도 문항들로 조사되었다. 긍정적 및 부정적 행동변화 측정 문항은 편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적응 연구(정현숙과 서동인, 1997)에서 사용되었던 문항들 중의 5개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은 모두 40개였다.

3. 조사절차

1999년 7월 중순 Y구청의 협조를 얻어 사무행정사업군 참가자들에게 질문지를 배포·실시한 후 회수하였다. 그러나 노무사업군의 경우 그들의 학력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사전 배포된 질문지에 다음날 응답해 오도록 하고 회수 시 사전에 훈련된 대학생 8명이 작업 현장에 가서 누락된 질문에 대해 직접 면접하고 필요하다면 응답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10명을 대상으로 최초 질문지가 배포되었으나 회수된 질문지에 의한 최종 분석 대상자 수는 184명이었으므로 회수율은 약 88%라고 볼 수 있었다.

2) 구청에서 제공한 '99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안내' 참조
3)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실직자는 외환위기 후의 실직자 및 미취업자 그리고 최소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다.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연구문제별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 방법의 최종결정을 위해 종속변인이 연속변인인 경우 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변량의 동질성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Levene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4개 변인, 자녀의 부정적 정서 및 행동변화의 3개 변인 모두에서 변량이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속변인인 종속변인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변량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위해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시사해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속변인들을 해당 문항들 총점의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류변인화 하였다⁴⁾. 예를 들어,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 중 삶의 질은 삶의 질 관련 3개 문항 총점의 평균을,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3개 범주 해당 문항들 총점의 평균을, 부정적 정서는 불안감·적대감·우울 점수 총점의 평균을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연령, 교육수준 변인들의 분류는 <표 1>에 제시된 범주에 따라 이루어졌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세 범주로 분류되었다.

연구문제1 즉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을 알기 위해 부정적 정서, 그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삶의 질·경제적 심각성 지각이 인구사회적 변인과 월평균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χ^2 검증했다.

연구문제3 즉 실직자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행동변화를 알기 위해 문항별 반응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부정적 정서가 실직 부모의 인구사회적 및 경제적, 심리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χ^2 검증했다.

연구문제 2와 4 즉 실직자의 경제적 심각성의 지각 및 자녀의 긍정적·부정적 행동변화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했다. 회귀분석시 특정 관찰치가 모수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Cook's Distance 값을 산출하였다. 그 값이 1.0 이상인 관찰치는 모수추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김충련, 1993). 따라서 추정 모델에 따라 분석 사례의 수가 달랐다. 모든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들은 입력 방식으로 동시에 투입되었다. 특별히 경제적 심각성의 지각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요인 집단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경제적 심각성의 지각 정도⁵⁾에 미치는 영향 변인들을 확인하였다. 설명력이 높은 모델을 찾기 위해 설정한 분석모델은 인구사회적 변인 분석모델(모델 I), 경제 변인 분석모델(모델 II), 심리 변인 분석모델(모델 III) 등의 단일 모델과 인구사회적 및 경제 변인 분석모델(모델 IV), 인구사회적 및 심리 변인 분석모델(모델 V), 경제 및 심리 변인 분석모델(모델 VI)과 같은 통합 모델로 모두 6가지 모델이었다. 구성 독립변인으로 각 모델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적 변인 분석모델 : 모델 I>

$$\text{Logit}(Y)=a_1+b_1X_1+b_2X_2+b_3X_3+b_4X_4+b_5X_5+\epsilon$$

<경제 변인 분석모델 : 모델 II>

$$\text{Logit}(Y)=a_2+b_6X_6+b_7X_7+b_8X_8+b_9X_9+\epsilon$$

<심리 변인 분석모델 : 모델 III>

$$\text{Logit}(Y)=a_3+b_{10}X_{10}+b_{11}X_{11}+b_{12}X_{12}+\epsilon$$

<인구사회적 및 경제 변인 분석모델 : 모델 IV>

$$\text{Logit}(Y)=a_4+b_1X_1+b_2X_2+b_3X_3+b_4X_4+b_5X_5+b_6X_6+b_7X_7+b_8X_8+b_9X_9+\epsilon$$

<인구사회적 및 심리 변인 분석모델 : 모델 V>

$$\text{Logit}(Y)=a_5+b_1X_1+b_2X_2+b_3X_3+b_4X_4+b_5X_5+b_{10}X_{10}+b_{11}X_{11}+b_{12}X_{12}+\epsilon$$

<경제 및 심리 변인 분석모델 : 모델 VI>

$$\text{Logit}(Y)=a_6+b_6X_6+b_7X_7+b_8X_8+b_9X_9+b_{10}X_{10}+b_{11}X_{11}+b_{12}X_{12}+\epsilon$$

4) 무응답의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함으로써 전체 분석대상 인원은 결과마다 다를 수 있다.

5) 경제적 심각성의 응답에서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심각하지 않다'로 응답한 사람을 경제적 심각성 지각도가 낮은 집단으로,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한 편이다'로 응답한 사람을 경제적 심각성 지각도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X ₁ : 성	X ₇ : 월평균 가구소득
X ₂ : 연령	X ₈ : 실수입의 수입
X ₃ : 교육수준	X ₉ : 정부지원
X ₄ : 혼인여부	X ₁₀ : 삶의 질
X ₅ : 가장여부	X ₁₁ : 사회적 지지
X ₆ : 순수추가소득	X ₁₂ : 부정적 정서

가장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가장의 연령과 교육수준을 분석한 결과, 연령 분포는 30세 미만이 15.5%, 30~49세가 39.2%, 50세 이상이 45.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과반수인 52%가 중졸이하였으며, 고졸이 37.8%,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1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가족의 경제현황을 대변하는 월평균 가구소득은 68만 6300원이었으며, 80.3%의 실직자가 1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건인 공공근로사업 참여로부터의 소득을 제외하면 가구원에 의한 근로소득과 같은 순수추가소득이 생계유지의 수단이 된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각종 정부의 지원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8.0%), 대신 기존의 저축이나 퇴직금, 재산처분 또는 빚에 의한 수입 즉 실수입 외 수입의 비중이 38.2%로 더 높았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사업군별로 성, 연령, 학력, 혼인여부, 가장여부 등에 따른 인구사회적 특성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전체의 특성변수별 빈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58.3%, 여자는 41.7%로 구성됨으로써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평균연령은 약 40세였으며, 30~40대가 36.8%, 50세 이상이 32.4%, 30세 미만이 30.8%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42.5%, 고졸 37%였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20.4%로 낮았다. 혼인여부와 가장여부에 따른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나 기혼자가 63.5%, 가장이 63.0%여서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한

2.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

실직 후의 불안, 적대감, 우울의 부정적 정서에 관한 질문(예를 들면,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

<표 1> 조사대상의 사업군별 특성

특성변수		근로사업군		전체
		사무행정	노무	
성	남	35(19.4)*	70(38.9)	105(58.3)
	여	27(15.0)	48(26.7)	75(41.7)
연령	30세미만	54(29.7)	2(1.1)	56(30.8)
	30~49세	9(4.9)	58(31.9)	67(36.8)
	50세이상	0(0.0)	59(32.4)	59(32.4)
교육수준	중졸이하	0(0.0)	77(42.5)	77(42.5)
	고졸	27(14.9)	40(22.1)	67(37.0)
	전문대졸이상	35(19.3)	2(1.1)	37(20.4)
혼인여부	기혼	9(5.0)	106(58.6)	115(63.5)
	미혼	54(29.8)	12(6.6)	66(36.5)
가장여부	가장	16(10.4)	81(52.6)	97(63.0)
	비가장	34(22.1)	23(14.9)	57(37.0)

* ()속은 백분율

이 안 된다.)에서, '그렇다' 내지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조사 대상자 과반수인 65.6%가 불안감을, 61.2%가 적대감을, 69.0%가 우울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별 인구사회적 변인과 소득에 따른 차이를 알기 위해, 정서별로 문항 점수를 합하여 산출한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심리상태를 구분한 다음 χ^2 검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정서 특성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불안과 우울 특성은 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있다는 공통된 결과를 얻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안과 우울 정도가 높으며, 미혼보다는 기혼, 비가장 보다는 가장, 사무행정 사업군의 근로참가자 보다는 노무 사업군에 참가하는 사람의 불안과 우울도가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불안과 우울의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적대감은 가장의 여부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는 대신 연령인 높거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기혼자인 경우 및 노무 사업군 참가자의 경우

더 높았다. 따라서 불안, 적대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기혼자로서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노무 사업군에 참여하는 사람에게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정보 및 평가적 지지, 자존심 지지 및 소속 지지 별로 응답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응답의 빈도는 세 하위차원 중 자존심 지지 차원에서 높게 나타나며, 소속 지지는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정보 및 평가적 지지의 두 문항에 대한 반응 결과는 상반되게 나타나,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지지에 비해 자신의 장래를 위한 정보 및 평가적 지지는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하위차원별 총점을 중심으로 지각된 지지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인구사회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정보 및 평가적 지지는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지각되며($\chi^2 =$

<표 2> 부정적 정서별 심리상태외 인구사회적 변인, 소득 및 근로직종간의 χ^2 검증결과

정 서	인구사회적 변인					소 득	근로직종
	성	연 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가장여부		
불 안	1.53	19.40***	17.60***	15.00***	13.75***	16.41***	25.35***
적대감	.00	10.98**	9.58**	7.88*	2.33	6.02	11.10***
우 울	1.57	30.45***	30.33***	25.22***	12.41***	22.58***	31.78***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에 따른 문항별 반응빈도와 백분율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	문 항 내 용	반응결과	
		그렇다	아니다
정보 및 평가적 지지	내가 만일 자녀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놓고 의논할 사람이 주변에 있다.	82(52.6)	74(47.5)
	나의 장래에 대해 마음놓고 같이 의논할 사람이 내 주변에는 하나도 없다.	55(31.3)	121(68.8)
자존심 지지	내가 알고있는 사람은 대부분 나를 좋게 평가한다.	152(86.4)	24(13.6)
	친구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믿고 따르는 편이다.	145(81.9)	32(18.1)
소속 지지	내 친구들은 우리집에 자주 놀러온다.	73(42.0)	101(58.0)
	나는 동네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같이 어울리는 모임이 있다.	74(42.8)	99(57.2)

6.35, $p=.04$), 자존심 지지는 여자에 비해 남자에게서 낮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x^2=4.84$, $p=.02$). 소속 지지감은 연령이 낮을수록($x^2=6.88$, $p=.03$), 수입이 적을수록 낮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x^2=7.78$, $p=.05$).

실직자가 지각하는 삶의 질은 자신, 자신의 삶,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한 만족도로써 조사되었다.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응답 즉 '매우 불만족하다' 또는 '불만족한 편이다'에의 응답은 55.7%와 58.8%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75.8%로 높게 나타났다.

인구사회적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차이는 결혼여부와 연령변인에서 나타났다. 즉 기혼집단에 비해 미혼집단,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실직자가 지각하는 삶의 질은 높다고 볼 수 있었다($x^2=6.50$, $p=.01$; $x^2=11.43$, $p=.00$). 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의 삶의 질이 높게 지각되며($x^2=8.23$, $p=.04$), 추가분석에서 사무행정 사업군 참여자가 노무사업 참가자에 비해 삶의 질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x^2=11.86$, $p=.00$).

한편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심각성에 대한 지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심각한 편이다'는 53.9%, '매우 심각한 편이다'는 29.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14.4%)와 '전혀 심각하지 않다' (2.2%)는 응답은 16.6%에 불과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3. 실직자가 지각하는 경제적 심각성에 영향 미치는 변인

모델별 경제적 심각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독립변인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각 분석모델은 유의수준 .001에서 적합하였다. 모델에 의한 설명력은 단일 모델의 경우 모델 III이 20%정도로 낮지만 모델 I과 II는 50%, 52%였다. 통합모델의 설명력은 다소 높아져

모델 IV가 약 60%, 모델 V가 약 61%였으며 모델 VI의 경우 약 70%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델 VI 즉 경제 및 심리변인에 의한 지각된 경제적 심각성의 예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단일 모델에서 나타난 경제적 심각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델 I의 인구사회적 변인 중에서는 연령이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 30, 40대의 집단이,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 집단이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최하인 집단(50만원 미만 집단)에 비해 50~99만원 집단이 더 심각하게 지각하며 모델 III에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합 모델인 모델 IV와 모델 V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혼인여부가 각각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모델 VI에서는 단일 모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실수입의 가구소득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 실수입외 수입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지각하는 경제적 심각성이 낮다고 볼 수 있었다.

4.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행동 변화, 행동변화에 영향 미치는 변인

자녀⁶⁾의 심리적 특성은 부정적인 정서는 우울, 분노, 불안으로써 조사되었다. 그 결과 우울의 평균은 2.52, 분노의 평균은 2.58, 불안의 평균은 2.54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서별 점수의 범위가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이었음을 감안할 때 중간 정도의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보인다고 할 수 있었다. 부정적 정서 점수의 합은 부모의 인구사회적 변인이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관련 변인 중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아에 비해 여아의 부정적 정서반응이 강하

6) 기혼의 조사대상자 116명 중 81명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 행동 변화에 관한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자녀의 성분포는 남자가 54.5%, 여자가 45.6%였다. 연령분포를 보면, 3~5세 6.2%, 7~12세 14.8%, 13~15세 12.3%, 16~18세 30.9%, 19~25세 28.4%, 26세 이상 7.4%로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 모델별 경제적 심각성 지각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 델		유의한 독립변인	B	SE	Wald 통계치	모델의 χ^2	Nagelkerke R^2 ^a
단일 모델	인구사회적 변인 분석모델 (모델 I)	연령(30세 미만=1) 30세~49세 혼인여부(기혼=1)	2.79 -2.08	1.25 .96	4.94** 4.68**	52.54***	.50
	경제 변인 분석모델 (모델 II)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미만=1) 50 ~ 99만원	2.51	.82	9.30**	49.64***	.52
	심리 변인 분석모델 (모델 III)	부정적 정서 (낮은집단=1)	-1.54	.58	7.04**	17.41***	.20
통합 모델	인구사회적 및 경제 변인 분석모델(모델 IV)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미만=1) 50 ~ 99만원	-1.38	.52	7.06**	51.05***	.60
	인구사회적 및 심리 변인 분석모델(모델 V)	혼인여부(기혼=1)	2.31	1.19	3.80*	53.54***	.61
	경제 및 심리 변인 분석모델(모델 VI)	실수입 외 수입 (낮은집단=1)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미만=1) 50 ~ 99만원 부정적 정서 (낮은집단=1)	-2.42 2.49 -1.86	1.24 1.29 1.06	3.82* 3.72* 3.06 ^b	57.23***	.70

*p<.05 **p<.01 ***p<.001,
a. 모델에 의한 총 설명변량. b. p<.10

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chi^2=4.02, p=.05$).

자녀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묻는 질문 즉 부모에 대한 이해증가, 자기일 스스로 하기, 씩씩하고 의젓해지기, 형제간 우애 증가 등에서 2.12~2.24의 반응평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쓸데없는 돈 낭비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문항에의 평균은 1.91이었다. 문항 별 1점(매우 그렇다)~4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점수분포를 고려할 때 긍정적 변화 역시 중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돈 낭비 행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었다.

부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알기 위해 식구의 노후와 건강에 대한 불안, 집안일 때문에 개인적인 공부/친구관계에 대한 소홀, 육체적으로 힘들게 됨 등에서의 변화를 질문하였는데, 2.14~2.69의 범위로 평균 점수가 분포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금 그렇다' 내지 '그렇지 않다'의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부

정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특히 '집안일 때문에 공부나 친구관계가 소홀해졌다'는 부정적인 변화는 '그렇지 않다'는 반응빈도가 56.8%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실업 후 자녀에게서 나타난 긍정적 및 부정적 행동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변인 즉 성과 연령 및 부정적 정서와 부모 변인 즉 인구사회적 변인과 경제 및 심리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종속변인이 모두 연속변인이므로 각각에 해당되는 문항 반응점수들의 합을 구한 다음 평균을 중심으로 두 집단으로 분류변인화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를 종속변인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5〉, 〈표 6〉과 같으며 유의도 10%이내에서 영향 미치는 독립변인만을 제시하였다⁷⁾.

〈표 5〉를 보면 자녀의 긍정적 행동변화에 영향을

〈표 5〉 자녀의 긍정적 행동변화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a

(N=4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Wald통계치	W유의도
긍정적 변화 ^b	자녀변인	성(남=1)	-3.37	1.57	4.63	.03
		연령 ^c (5~18세 집단=1)	-3.61	1.79	4.05	.04
		부정적 정서 ^d (낮은집단=1)	-1.85	1.10	2.83	.09
	부모변인	부정적 정서(낮은집단=1)	-3.89	1.73	5.09	.02
		삶의 질(낮은집단=1)	4.31	1.73	6.24	.01

a. 회귀모델의 $x^2=24.70(p=.01)$, 설명변량은 60%

b. '긍정적 행동변화' 점수가 평균 미만인 집단=1, 평균 이상인 집단=2

c. 5~18세집단=1, 19세 이상집단=2

d. 우울, 분노, 불안의 정서반응 문항에서의 점수 총점이 평균 미만인 집단=1, 평균 이상인 집단=2

〈표 6〉 자녀의 부정적 행동변화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a

(N=50)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Wald통계치	W유의도
부정적 변화 ^b	자녀변인	연령(5~18세 집단=1)	6.20	2.90	4.58	.03
		부정적 정서(낮은집단=1)	5.89	2.14	7.59	.01
	부모변인	삶의 질(낮은집단=1)	-3.58	1.85	3.75	.05
		연령(29세 이하집단=1) 50세 이상	-4.71	2.14	4.86	.03

a. 회귀모델의 $x^2=41.13(p=.00)$, 설명변량은 75%

b. '부정적 행동변화' 점수가 평균 미만인 집단=1, 평균 이상인 집단=2

미치는 자녀변인은 자녀의 성, 연령, 부정적 정서임을 알 수 있다. 즉 남아가 여아에 비해, 5~18세 자녀가 19세 이상의 자녀에 비해, 또 부정적 정서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긍정적 변화가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변인을 중심으로 할 때, 부 또는 모의 삶의 질이 높은 집단과 부정적 정서가 낮은 집단의 자녀에게서 긍정적 변화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부정적 행동변화 역시 자녀의 연령, 부정적 정서 수준에 유의하게 영향받음을 〈표 6〉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5~18세 자녀에 비해 19세 이상의 자녀 집단이, 부정적 정서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삶의 질과 연령이 자녀의 부정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삶의 질이 낮은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 변화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연령은 29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50세 이상인 고연령 집단에서의 자녀 부정적 변화도가 낮게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한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 그들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행동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그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서 나타난 가구주의 연령·교육수준 분포 특성은 Y구청의 공공근로사업 참가 신청자 중 세대주 여부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면

7) 참고로, 〈표 5〉와 〈표 6〉에서 회귀분석의 대상자 수가 42명, 50명으로 적은 것은 잔차를 고려한 사례의 제외에 따른 결과가 아님을 밝혀둔다. 이는 기혼자 115명 중 자녀의 심리적 특성 관련 문항에의 응답자는 81명이었으며 그들 중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인을 조사하는 문항들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무응답한 사례가 제외됨으로써 크게 줄게 된 것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도시가계조사 분석(정건화, 1999)에서 나타난 무직 가구의 가장 속성 즉 6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30대와 40대의 연령층 비중이 높아졌고, 중졸이하 학력 가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고졸이상 학력 가구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경향과 유사한 면이 있었다. 같은 연구에 의하면 도시가구의 하위계층에서 50대 연령층이 증가했으며 중졸이하 학력의 가구 비중이 증가했다는 경제생활 변화도 있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 표집은 실직자 이면서 도시가구의 하위계층 및 무직가구주의 특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생활보호법 상의 거택·시설보호 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신청 제외자였으나 자활보호나 한시적 자활보호 대상자가 본 연구 조사대상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음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⁸⁾.

실직자의 심리적 특성 중 먼저 부정적 정서를 살펴본 바 전국의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선우(1999)의 보고나 전북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남춘호(1999)의 보고에서와 같이 불안감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또 불안·우울·적대감의 수준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가장보다 가장에서 높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가구주로서의 가족부양 책임감에 비해 장래가 막연하다는 점, 저학력으로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구사회적 변인 및 소득간의 차이에 따른 심리상태의 차이는 실직자 중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시사해 주었다.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난 사람들 즉 고연령, 저학력의 가장으로 소득 수준도 낮아 정부지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의 노력이 요구된다 볼 수 있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위기의 가족에게 중요하다는 것은 Schaefer와 그의 동료들(1981)에 의한 물질적 지지의 중요성, Boss(1988)에 의한 정보적 지지의 중요성 지적에서 이미 알려진 바 있다(조성희, 1999). 신준섭과 이영분(1999) 역시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직자가

지각하는 자존심 지지는 높은 반면, 소속 지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에 따른 자존감의 손상과 자신에의 실망감(남춘호, 1999; 조성희, 1999)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낮은 자존감에 따른 반동형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낮은 소속지지는 수입 감소로 상호교환적인 사회적 의무를 감당할 수 없어 대인관계가 악화되고(Elder & Casp, 1988; 조성희, 1999에서 재인용), 사회관계망의 범위가 축소됨(Warr, 1984; 최혜경, 1998에서 재인용)으로 결과된다고 하겠다. 자신의 문제에 관한 정보 및 평가적 지지가 낮다고 지각되는 것은 자신의 장래 불확실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자녀교육을 위한 높은 지지는 앞서의 결과 즉, 주변인의 생활지원이 높으며, 자녀 문제도 주변인들과 의논하기를 희망한다는 결과로써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정보 및 평가적 지지, 소속 지지는 연령이 낮은 사람에게서 낮게 지각되며, 자존심 지지는 남자에게서 낮게 지각된다는 것이다. 부정적 정서 특성이 고연령, 저학력자에서 높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실직자를 위한 심리적 서비스에서 대상의 연령과 성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여 대인적 지지감을 높이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과반수의 실직자가 자신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활 수준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월평균 소득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함께 추상적인 삶보다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 생활수준에 대한 불만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무행정 사업군 참가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상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미혼자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의 질이 노무사업 참가자에 비해 높게 지각됨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대다수의 실직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각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확인한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8)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율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있다. 첫째, 경제적 심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월평균 가구소득, 실수입의 수입과 같은 경제변인이었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전체 대상의 평균 소득수준을 포함하는 50~99만원인 집단이 비교기준이 되는 최저 소득집단보다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은 기준집단은 낮은 소득에 따른 심각성을 수용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을 전후한 소득집단은 현실 경제상황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 상황을 벗어나기를 희망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심각하게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수입의 수입은 빚을 포함하지는 하지만 기존의 재산에 근거한 수입을 주로 의미한다고 할 때 이는 '동면가능기간'을 연장시켜줄 수 있으며(김기욱, 1998), 나아가 경제적 심각성에 따른 가족해체(별거)에 까지 영향미칠 만큼 중요하다(조성희, 1999). 따라서 실수입의 수입에 따른 경제적 심각성 지각도의 차이는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둘째, 부정적 정서인 우울, 적대감, 불안감 등이 낮을 때 경제상황을 덜 심각하다고 지각한다고 나타났었다. 경제적 심각성 지각에 따른 추가 부작용의 예측 그리고 특히 모델 VII에 의한 예측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여건 개선과 함께 부정적인 정서수준을 낮출 수 있는 정서적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혼에 비해 기혼자 집단이, 30세 미만보다는 30~40대의 연령집단이 심각성을 더 크게 지각하는데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중재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30~40대 연령층은 외환위기 이후 실업가구의 특성을 대변하는 연령층으로(정건화, 1999),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의 부담이 큰 시기에 해당된다. 또 자녀 교육비의 부담은 실적으로 인한 생계비 마련의 어려움 다음으로 큰 고통이라는 연구 결과(남춘호, 1999)에 비추어 본 연구 결과는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심리적 특성 조사는 실직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의 양육 방식을 통한 부모자녀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자녀의 사회정서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된다는 보고(박현선, 1999a), 외환위기 이후 생활의 변화가 자녀의 공격성, 우울감

및 부정적 자아개념을 높게 한다는 보고(박민선과 박성연, 1999)에 근거하여 주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직자 가정 자녀의 부정적 정서 특성, 긍정적 및 부정적 행동변화 모두가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성인 실직자들에서 부정적 정서 특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되는 결과인 것이다.

자녀의 긍정적, 부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변인은 연령과 부정적 정서수준이었다.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어린 자녀들은 실직가정의 자녀가 겪게 되는 환경적·정서적 위험이 큰 청소년기(박현선, 1999a)를 포함한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이든 성인자녀들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크고 부정적 변화가 적었다. 최규련(1999)도 실직자 아내의 자녀의 부정적인 변화를 가장 적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편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현숙·서종인(1997)도 유사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편모가족이 된 후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는 부정적으로 행동 변화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도 실직가정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실직 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참여를 담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함으로써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 것(류재란, 1999; 박현선, 1999a)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된다.

한편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서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여아에 비해 남아에서 긍정적 변화가 높게 나타났다. 실직가정에서 남아의 적응행동은 여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더 크게 영향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아의 우울감과 부정적 자아개념 수준이 높았다는 결과(박민선과 박성연, 1999), 그리고 본 연구에서 여아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성에 따른 차이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모변인 중 삶의 질이 낮거나 부정적 정서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긍정적 변화가 적고 부정적

변화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함께 비록 소득의 감소는 자녀의 성적저하나 비행행동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도(남찬섭, 1999), 본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결과는 실직 후 자녀를 위해 중요한 가족환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즉 실직가정 자녀의 적응에 중요한 것은 정현숙과 서동인(199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수준과 같은 외적 특성보다는 가족 심리적 변인임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는 실직자 및 자녀의 심리적 특성, 자녀의 행동변화 등의 조사 문항의 수가 적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 외환위기 후의 실직자만을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를 일부 지역에서 표집하여 조사하였으며, 일부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됨으로써 최근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실직의 영향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김양희 외, 1999; 조성희, 1999)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도시 저소득층의 특성, 전국의 실직자 가장의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월평균 소득과 최소생활비도 전국의 실직가정 수준과 유사한 경제적 취약성을 보였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후 1년 반이 흐른 시점에서 적어도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생활실태와 심리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방향을 찾기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급속한 사회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비해 순발력과 전문성을 살려 복지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지역 사회복지관의 중요성을 전제로(홍금자, 1998), 사회복지관은 실직자 가족을 위해 보다 질 높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실직 후 가족생활의 어려움이 증가하였으며 실직자가 지각하는 삶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정적 정서수준은 특히 고연령·저학력·저소득의 가장과 같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에서 높았으며, 실직자의 경제적 심각성의 지각이나 자녀의 변화에 있어 심리적 특성이 중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의 경제적 차원의 실업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

간단체에 의한 심리·상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선우, 1999; 조성희, 1999; 허선, 1999). 따라서 실직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관에서 주도하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담 대상이 갖는 조건에 따라 상담의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령에 따라 저연령층인 경우 소속 지지감이 낮고 30~40대는 경제적 심각성을 높이 지각하며, 고연령인 경우는 부정적 정서수준이 높다는 심리특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저학력자는 높은 부정적 정서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자녀인 경우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고려하여, 자녀 자신의 적응유연성 증진 뿐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위기상황을 사전 조절하기 위한 부모의 사회심리적 문제의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에서의 적극적 대처기제 사용(조성희, 1999), '단념적 적응'보다는 '구조적 적응'의 선택과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 중요성 인식(최혜경, 1998) 등으로 유도해 가는 상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관의 상담프로그램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선행 연구결과(천희영과 류황건, 2000)에서 나타났듯이 실직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여 적극적으로 상담기관을 찾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실직자 개인의 두려움과 수치심, 사회적 고립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조성희, 1998, 이선우,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실직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는 그들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기욱 (1998). 실직자 가정의 경제생활 대처방안. 실직자 가정을 위한 대처방안, 대한가정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1-33.
- 2) 김양희 외 6인 (1999). 가장의 실직전 직업유형

- 에 따른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7(2), 93-104.
- 3) 김옥희 (1999). 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 <http://web.pusan.ac.kr/dept/welfare/99-3.htm>.
 - 4) 남찬섭 (1999). 실업가구의 가족복지서비스. 보건복지포럼, 33(6), 37-50.
 - 5) 남춘호 (1999). IMF 1년반 전북지역의 실업문제와 사회적 위기. 실업극복을 위한 NGO의 활동과 성과. 전북대학교 실직자 사회복지 지원센터 개소 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13-24.
 - 6) 류재란 (1999). 제3주제 토론(2). 실업극복을 위한 NGO의 활동과 성과. 전북대학교 실직자 사회복지 지원센터 개소 1주년기념 학술세미나, 72-74.
 - 7) 문혁준 (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8) 박민선, 박성연 (1999). 경제불황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적응. 아동학회지, 20(2), 57-74.
 - 9) 박능후 (1999). 사각지대 실업자집단 분석. 보건복지포럼, 33(6), 5-15.
 - 10) 박현선 (1999a). 실직자 자녀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전북대학교 실직자 사회복지 지원센터가 수행한 '답쟁이학교'를 중심으로. 실업극복을 위한 NGO의 활동과 성과. 전북대학교 실직자 사회복지 지원센터 개소 1주년기념 학술 세미나, 51-68.
 - 11) _____ (1999b). 고위험 빈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 195-216.
 - 12) 신건희 (1999). 대량실업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파라다임전환. <http://web.pusan.ac.kr/dept/welfare/99-11.htm>.
 - 13) 신준섭 ·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 241-269.
 - 14) 오은순 (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이선우 (1999). 실업자의 심리상태와 형태. 보건복지포럼1, 33(6), 28-36.
 - 16) 정건화 (1999).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상태 변화-도시가계조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UNDP 참여연대 공동 포럼>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 시시스템' 파일자료(<http://www.pspd.org/k-index.html>).
 - 17) 정현숙, 서동인 (1997). 편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18(2), 163-176.
 - 18) 조성희 (1999). 실직 가장이 인식하는 가족해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13, 138-165.
 - 19) 천희영, 류황건 (2000). 실직자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관 사업의 운영방향. 보건과 사회과학, 6·7 통합호, 145-165.
 - 20) 최규련 (1999). 실직자 가족의 문제와 대처, 우울감 및 심리문제 해결지원 요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47-61.
 - 21) 최혜경 (1998). 실직자 가정의 가족생활. 실직자 가정을 위한 대처방안,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4-49.
 -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98-14, <http://www.kihasa.re.kr/data/om98-14.htm>.
 - 23) 허 선 (1999).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 <UNDP 참여연대 공동 포럼>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파일자료(<http://www.pspd.org/k-index.html>).
 - 24) 홍금자 (1998). IMF 체제에서의 민간사회복지의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139, 26-53.